

◆ 2006년 3월 1일, 케이프타운 협약 '항공기의정서' 발효

미수은은 케이프타운 협약의 부속서인 '항공기의정서'가 미국, 말레이시아⁴⁾ 등 8개국의 비준 완료로 2006년 3월 1일자로 발효 되었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동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는 2006년 1월에 비준한 세네갈을 포함하여 에티오피아, 아일랜드,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파나마, 미국, 말레이시아 9개국이다.

동 의정서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고 국가간 이동하는 항공기, 헬리콥터, 항공기 엔진 등에 대한 국제적 권리를 향후 설립될 등록처(International Registry)에 등재함으로써 물권확보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경감하고, 상기 수출목적물의 연불수출거래에 대한 금융, 리스지원을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이다.

미수은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항공기의정서에 여타 국가들의 가입, 비준을 촉구하기

위하여 동 의정서를 비준한 국가에 소재하는 항공사가 미국산 항공기를 구매하는 사업을 지원시 대외위험수수료를 1/3 경감하여 주고 있다. 현재 미수은의 대형 상업용 항공기 수출금융 관련 대외위험수수료 수준이 최소 3%이므로 동 의정서 가입으로 대외위험수수료가 2%까지 낮아진다. 다만, 리스방식의 경우 미수은은 항공기 리스회사(lessor)와 항공사(lessee)가 모두 동 의정서 비준국가에 소재하여야 대외위험수수료를 경감하여 주고 있다.

케이프타운 협약은 항공기, 항공기 장비 관련 물권, 리스권을 상업적인 관점에서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11월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28개국이 서명하였으며, 현재까지 8개국이 비준 또는 가입하였다.⁵⁾

【김 재 철】

◆ JBIC, 사우디 석유정제·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총 25억 달러 대출

지난 3월 2일 JBIC은 프로젝트파이낸스 방식으로 사우디아라비아의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와 석유정제·석유화학 프로젝트에 총 25억 달러를 지원하는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일본의 스미토모화학(주)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Saudi Arabian Oil Company가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Rabigh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y가 Saudi Arabian Oil Company 소유의 기존 석유정제시설을 취득·개보수하고, 석유화학 플랜트를 신설하여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로 98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JBIC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Public Investment Fund(PIF)⁶⁾가 10억 달러를 대출하기로

4) 말레이시아가 2005년 11월 비준하여 8개국 비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4개월 후인 2006년 3월 1일 발효.

5) 자세한 내용은 수은해외경제 2004년 12월호 참고.

6) 사우디아라비아의 정부계 금융기관으로 중장기 금융 지원.